



코로나19 시대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2020. 8. 11

정지훈 책임연구원
02-3406-1054
jhjung@icak.or.kr

Contents

I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 ②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주요국
- ③ 2020년, 2021년 경제성장 전망

II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전망

- ① 국제유가 동향 및 이슈
- ② 원유 수급 및 2020년, 2021년 국제유가 전망

III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① 아시아
- ② 중동
- ③ 아프리카
- ④ 중남미
- ⑤ 북미태평양
- ⑥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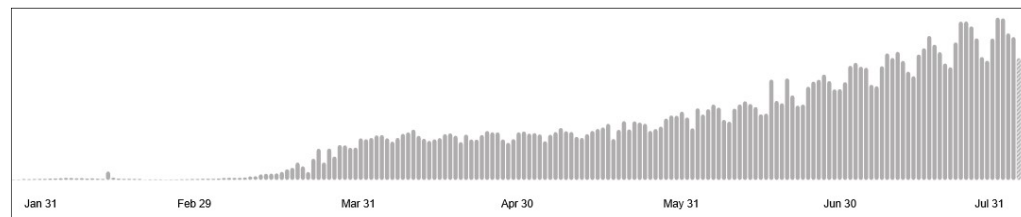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전 세계 213개 국가/지역에서 발병 중이며, 확진자 1,868만명, 사망자 70만명(2020. 8. 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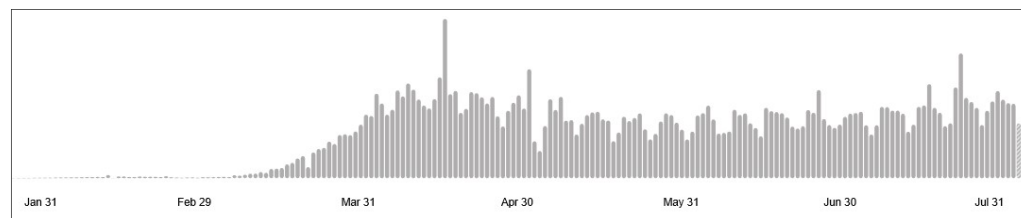
[발병 현황]

구분	확진	사망	회복
전 세계	18,683,573	703,135	11,902,943
미국	4,918,063	160,272	2,481,073
브라질	2,808,076	96,096	1,970,767
인도	1,906,613	39,820	1,281,660
러시아	861,423	14,351	661,471
남아공	521,318	8,884	363,751
멕시코	443,813	48,012	295,677
페루	433,100	19,811	298,091
칠레	362,962	9,745	336,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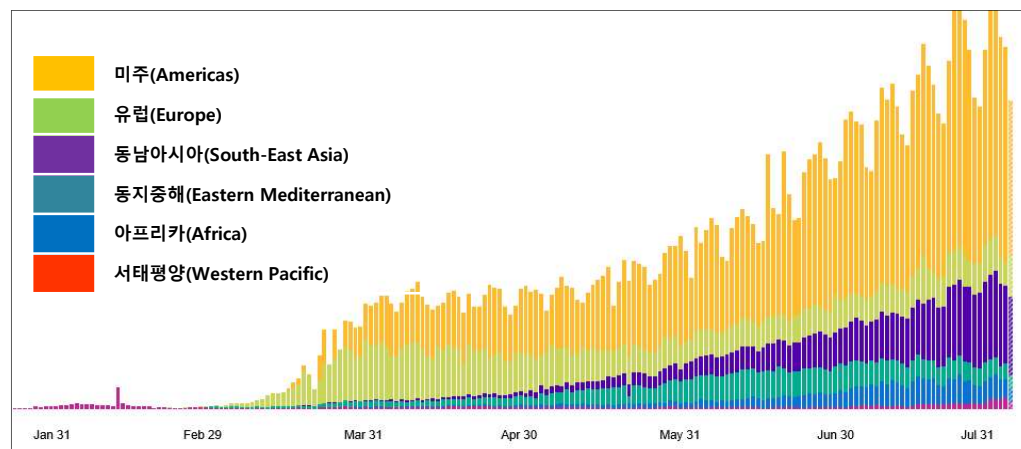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



[일별 신규 사망자 추이]



[WHO 기준 주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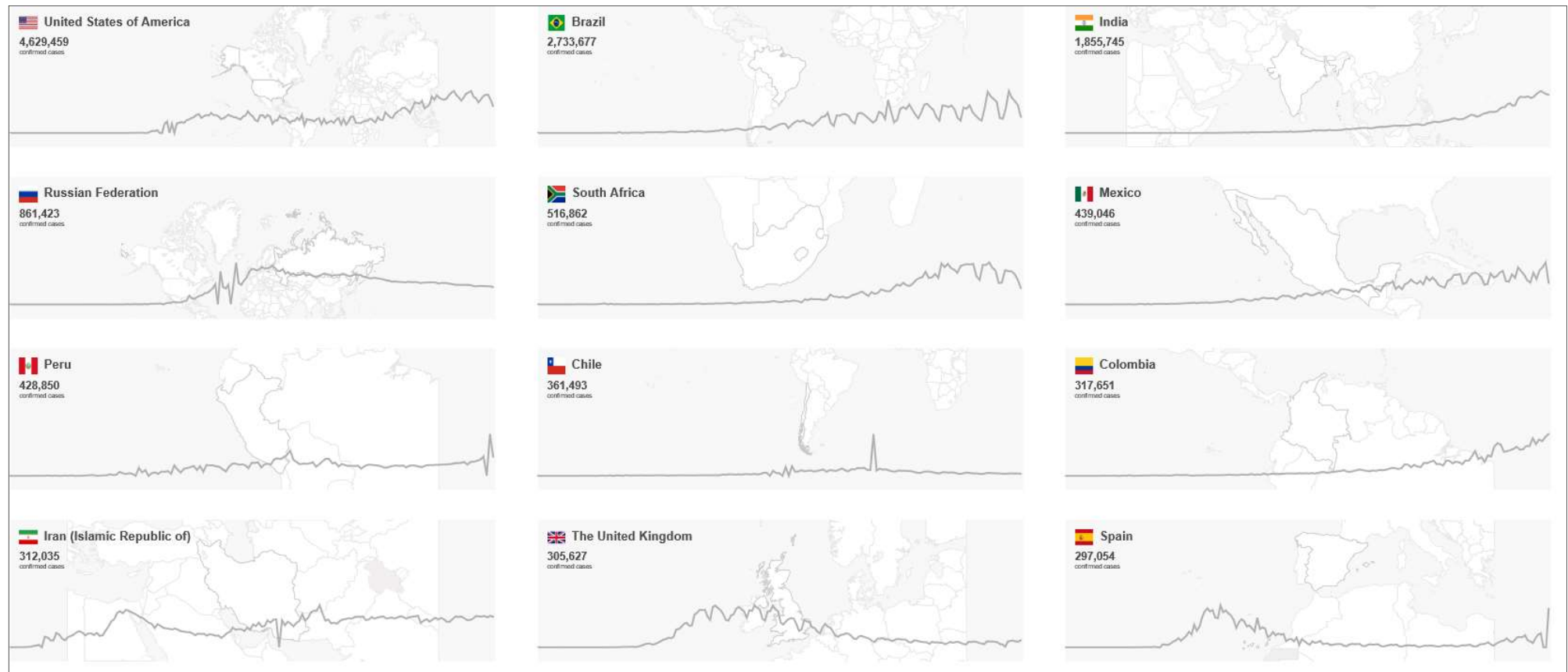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내 확진자수 급증

미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단, 램데시비르를 비롯한 치료제 공급 확대 및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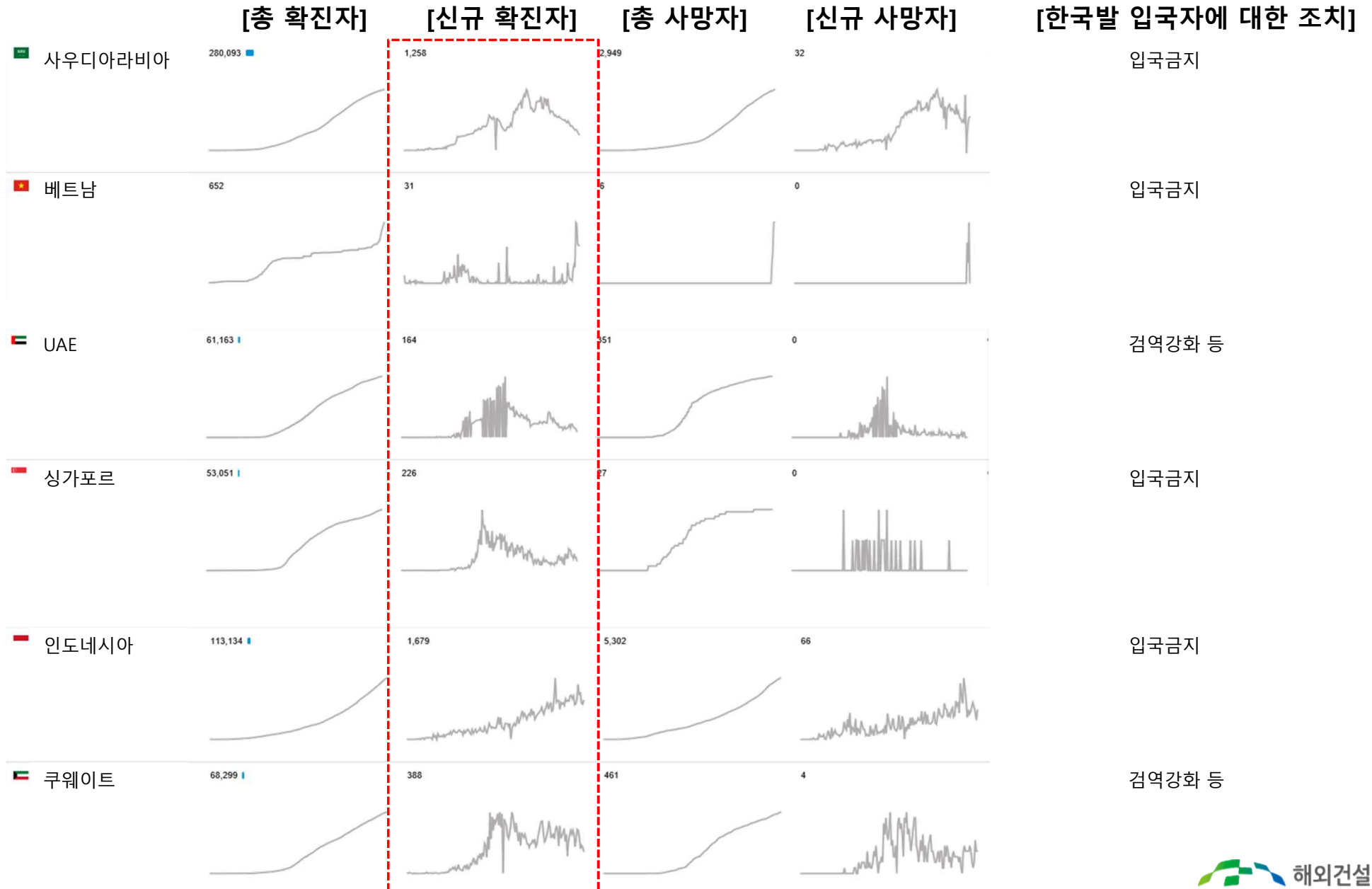
[주요 발병국내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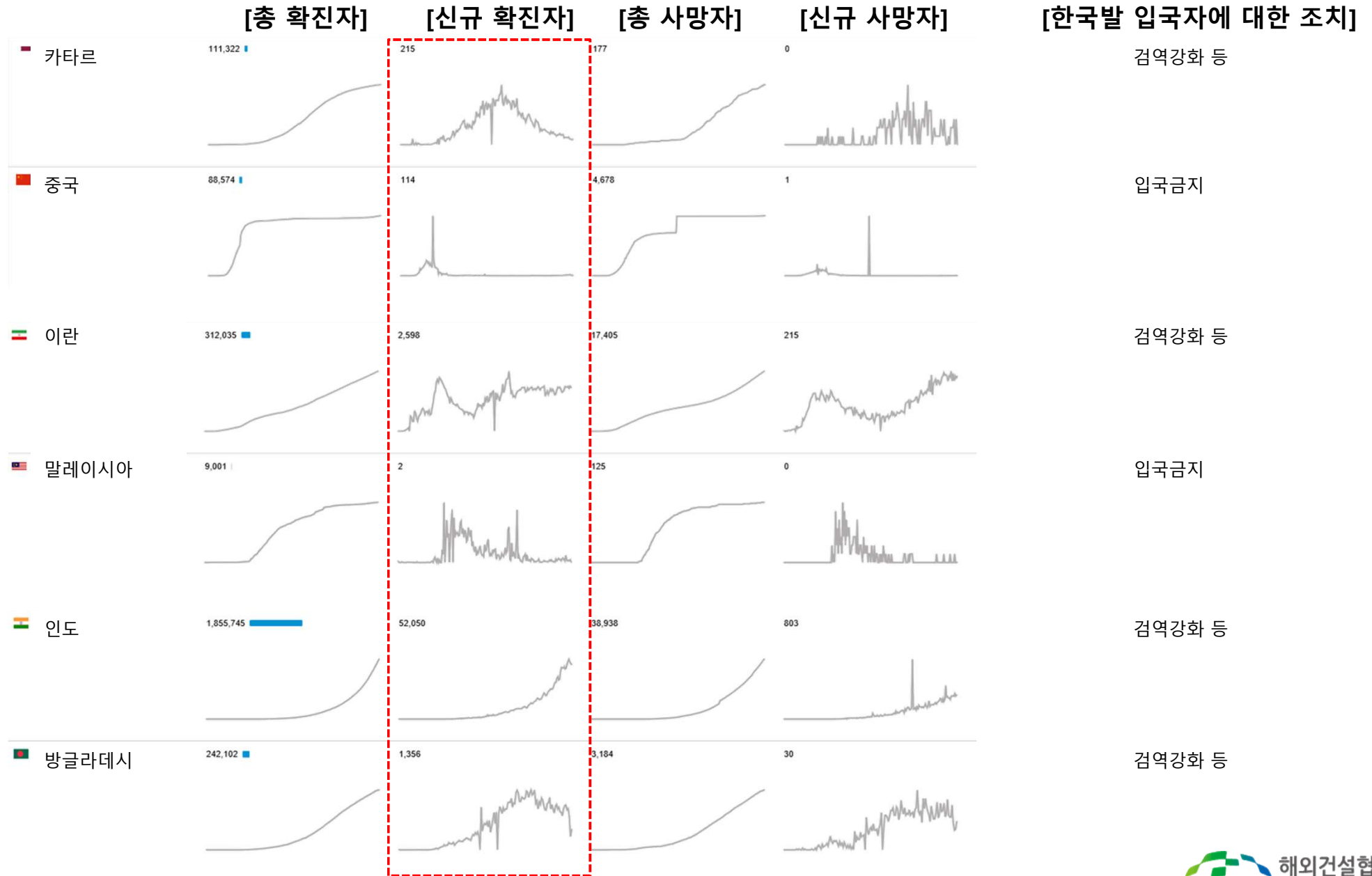
[출처 : WHO]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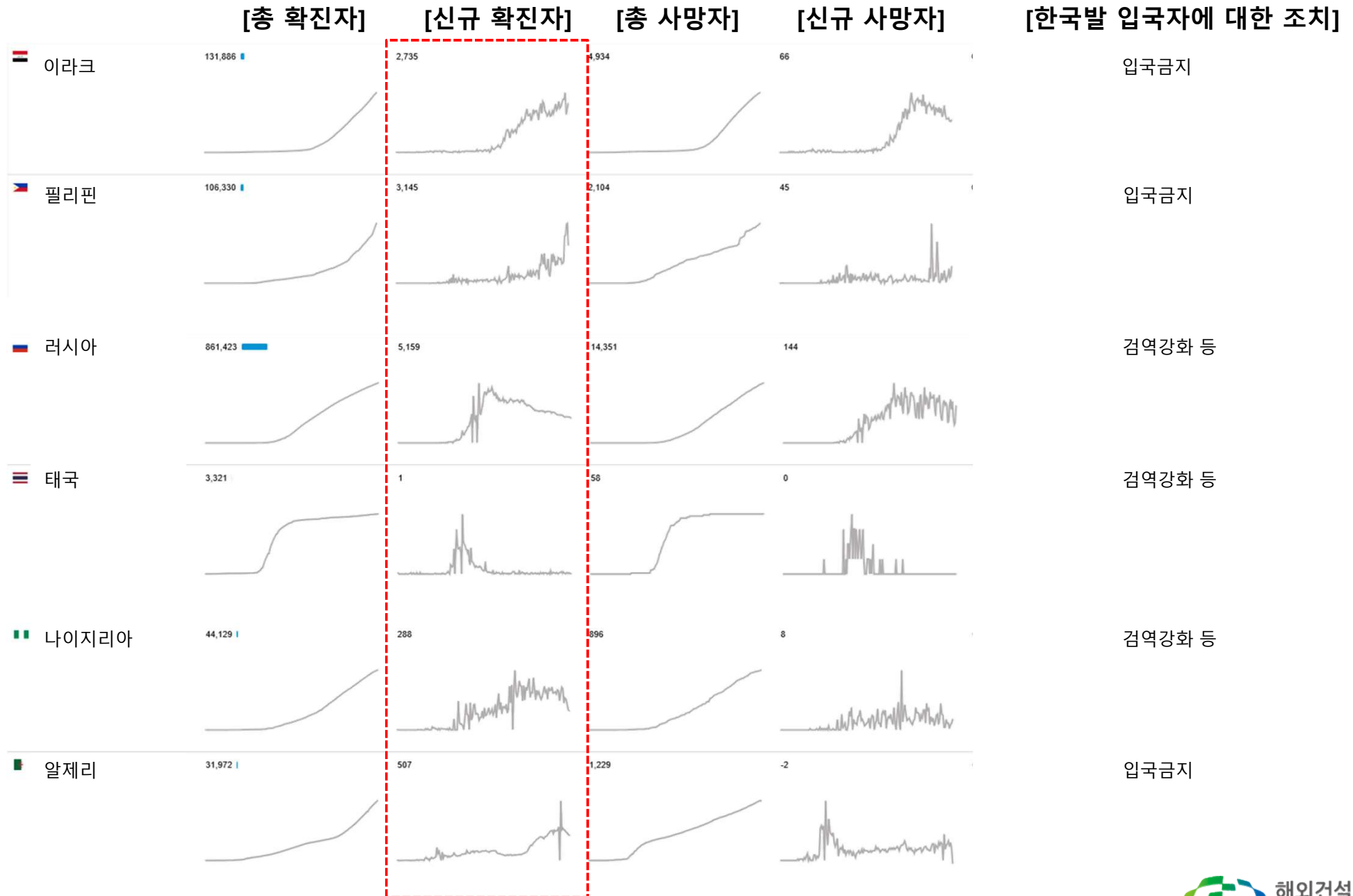
해외건설 주요 진출국 코로나19 발병 현황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동향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① 2020년 경제성장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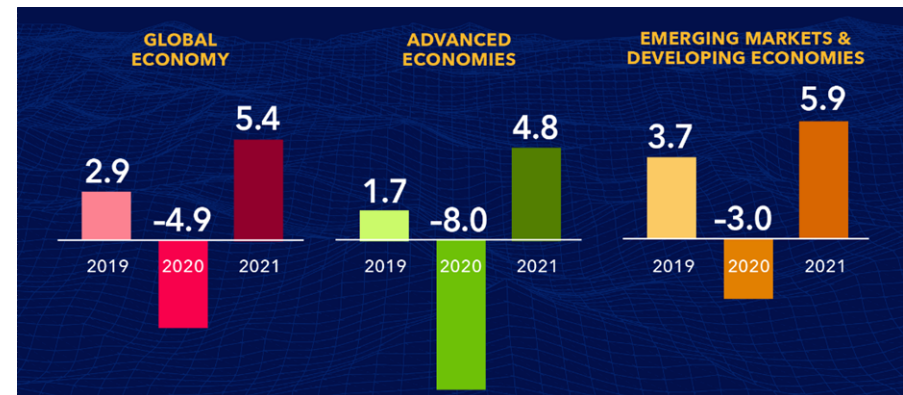
IMF,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3.0%('20.4) → -4.9%('20.6)

-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이 상반기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가함
-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권(Advanced Economies) 성장률 전망 : -6.1%('20.4) → -8.0%('20.6)
- 중국, ASEAN-5 등 신흥 경제권(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성장률 전망 : -1.0%('20.4) → -3.0%('20.6)

[경제권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치 하향 조정 요인	
1	중국,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 1분기 GDP 부진
2	2분기 심각한 경기 위축 우려
3	전반적인 교역의 감소
4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심화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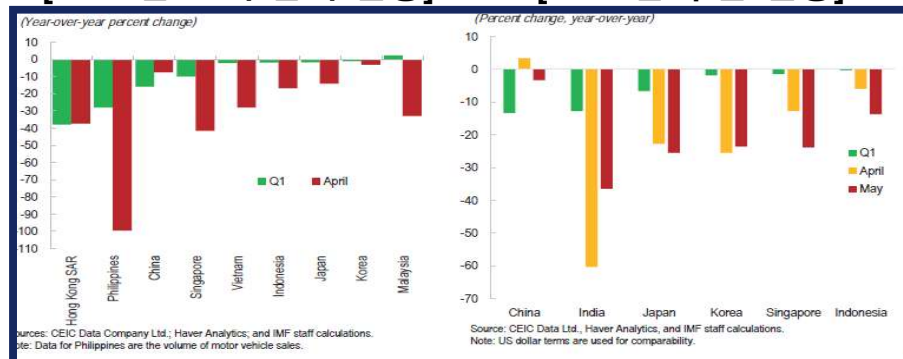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6)]

주요 동향 및 전망	
1	GDP 성장률은 2분기 최저치를 기록 후 회복 예상
2	주요 국가별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책 효과 기대
3	G20 등 다자간 협력 확대 전망
4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 등 양극화 확대

[2020년 소매 판매 현황]

[2020년 수출 현황]



[출처 : 코로나19 후 글로벌 경제 트렌드 변화, Angana Banerji, IMF]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② 주요국 2020년, 2021년 경제성장 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각 국의 경기 부양 및 경제 정상화를 통해 5.4%로 전망됨

구분	2018	2019	전망치	
			2020	2021
아르헨티나	-2.5	-2.2	-9.9	3.9
호주	2.8	1.8	-4.5	4.0
브라질	1.3	1.1	-9.1	3.6
캐나다	2.0	1.7	-8.4	4.9
중국	6.7	6.1	1.0	8.2
이집트	5.3	5.6	2.0	2.0
프랑스	1.8	1.5	-12.5	7.3
독일	1.5	0.6	-7.8	5.4
인도	6.1	4.2	-4.5	6.0
인도네시아	5.2	5.0	-0.3	6.1
이란	-5.4	-7.6	-6.0	3.1
이탈리아	0.8	0.3	-12.8	6.3
일본	0.3	0.7	-5.8	2.4
카자흐스탄	4.1	4.5	-2.7	3.0
한국	2.9	2.0	-2.1	3.0
말레이시아	4.7	4.3	-3.8	6.3
멕시코	2.2	-0.3	-10.5	3.3
네덜란드	2.6	1.8	-7.7	5.0
나이지리아	1.9	2.2	-5.4	2.6
파키스탄	5.5	1.9	-0.4	1.0
필리핀	6.3	6.0	-3.6	6.8
폴란드	5.3	4.1	-4.6	4.2
러시아	2.5	1.3	-6.6	4.1
사우디아라비아	2.4	0.3	-6.8	3.1
남아프리카공화국	0.8	0.2	-8.0	3.5
스페인	2.4	2.0	-12.8	6.3
태국	4.2	2.4	-7.7	5.0
터키	2.8	0.9	-5.0	5.0
영국	1.3	1.4	-10.2	6.3
미국	2.9	2.3	-8.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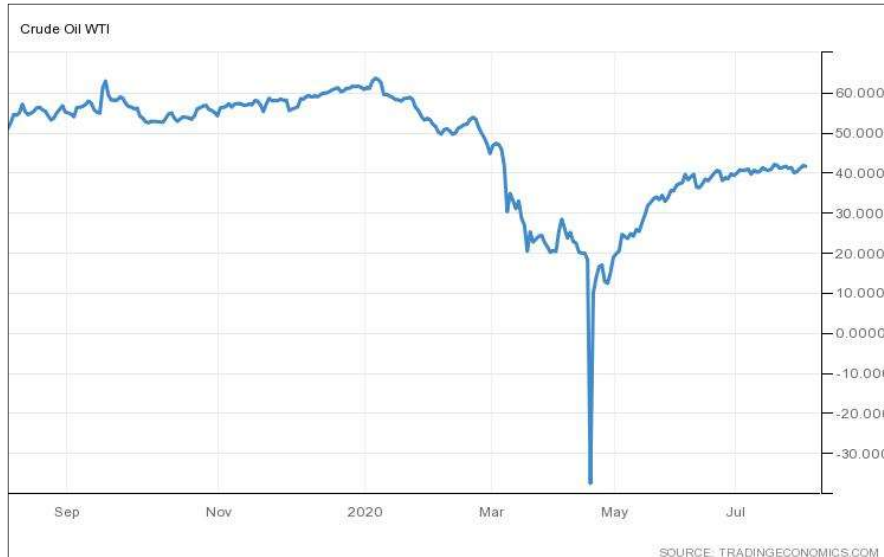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6)]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전망 ① 국제유가 동향 및 이슈

3~4월 초(超)저유가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봉쇄 완화 및 수요 증가세로 40불/배럴 이상으로 반등

- WTI(불/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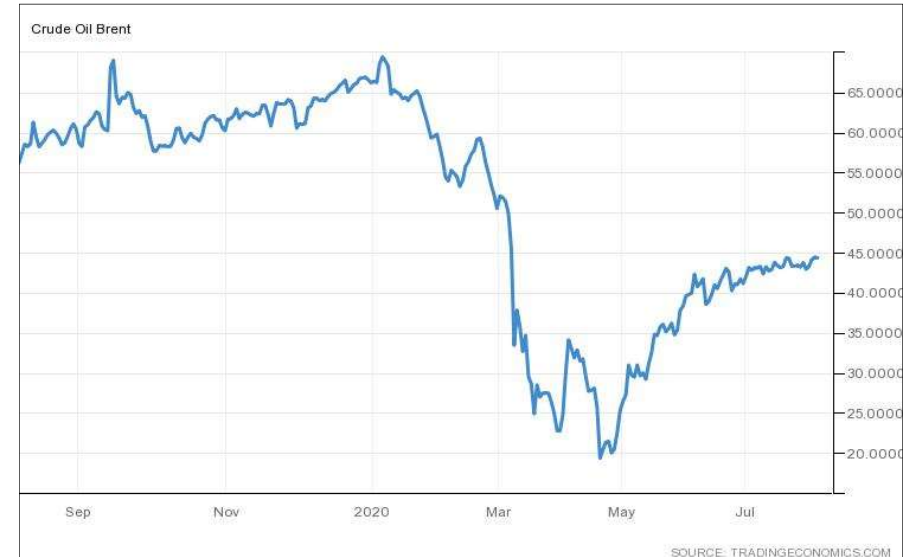
: 57.0('19년)→18.9(4월말)→34.4(5월말)→41.6(8. 5)



[출처 : tradingeconomics]

- 브렌트(불/배럴)

: 64.4('19년) → 20.0(4월말) → 35.6(5월말) → 44.3(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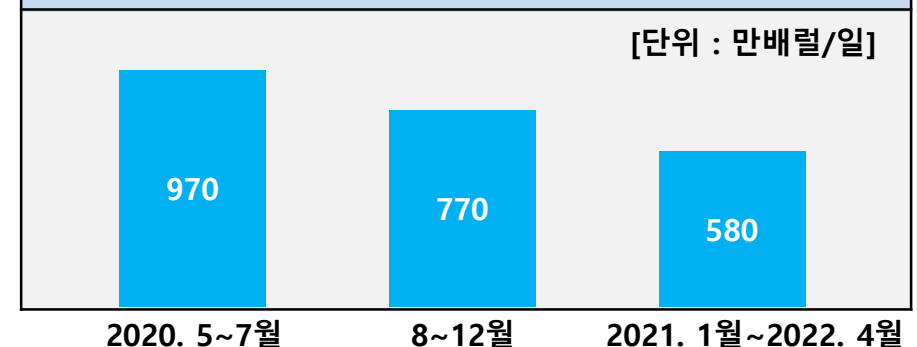


[출처 : tradingeconomics]

최근 원유시장 주요 이슈

1	OPEC+의 2021년 감산규모 축소 여부
2	최근 유가 반등에 따른 감산안 지속 이행 여부
3	주요국 경제 재개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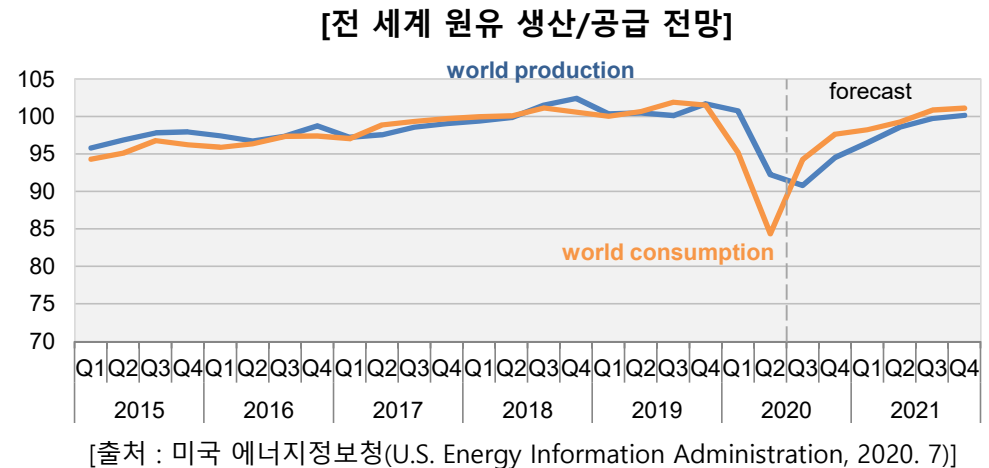
2020~2021년 OPEC+ 감산안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전망 ② 원유 수급 및 2020년, 2021년 국제유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최근 전망('20. 7월)에 따르면, 원유 소비량은 2분기 최저치를 기록 후, 하반기부터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일일소비량은 2분기 8,437만 배럴로 최저치를 기록.
3분기부터 회복세가 나타나며 3분기 9,428만 배럴, 4분기에는 9,763만 배럴로 점진적인 상승 전망
- 생산량은 3분기 9,083만 배럴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3분기부터 생산량이 소비량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국제유가(WTI 기준)는 올해 4분기 40불, 2021년 2분기부터 45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19.4분기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WTI	56.9	45.3	27.8	37.8	39.5	42.1	45.0	47.0	48.5
Brent	63.3	50.0	293	40.0	43.0	46.1	49.0	51.0	53.0

[출처 :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0. 7)]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치를 10.5조불로 하향 조정

-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조불) : 11.6('19.12) → 11.1('20.4) → 10.5('20.4)
- 세계건설시장성장률 전망(%) : 3.4('19.12) → -1.7('20.4) → -6.8('20.4)

세계건설시장규모 하향 전망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IMF -4.9%, OECD -6.0%), 코로나19 2차 확산시 추가 하향 우려
- 산유국 및 자원부국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지출 축소 → 신규 발주 감소
- 기자재/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공사 진도율 저하,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세계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105,358	110,975	-5,617
성장률(%)	-6.8	-1.7	-5.1
CAGR*(%)	1.4	2.7	-1.3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



전 지역·전 공종에서 역성장이 전망되나, 아시아 시장성장률(-1.9%)은 상대적으로 양호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CAGR
아시아	47,363	50,780	55,450	56,482	55,384	-1.9	4.0
유럽	23,102	23,941	26,138	26,041	23,751	-8.8	0.7
북미.태평양	17,316	18,312	18,769	18,494	16,500	-10.8	-1.2
중동	5,625	5,641	5,222	5,198	4,373	-15.9	-6.1
중남미	5,484	5,920	5,921	5,557	4,250	-23.5	-6.2
아프리카	925	1,006	1,210	1,260	1,101	-12.6	4.5
합계	99,815	105,598	112,710	113,032	105,358	-6.8	1.4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CAGR
건축	57,362	60,663	64,461	64,585	59,953	-7.2	1.1
토목	20,594	22,598	24,444	25,085	23,795	-5.1	3.7
플랜트	21,858	22,337	23,805	23,362	21,610	-7.5	-0.3
합계	99,815	105,598	112,710	113,032	105,358	-6.8	1.4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2016년~2020년)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① 아시아

아시아

-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5조 5,384억불로 전망
- 최대 건설시장인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내수부양에 집중하면서 타 지역대비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해외투자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2/4분기부터 V자형 회복세가 기대됨. IMF는 중국 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4.5%의 역성장이 예상됨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5의 경제를 보면, 2019년부터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2.0%)가 예상되나, 베트남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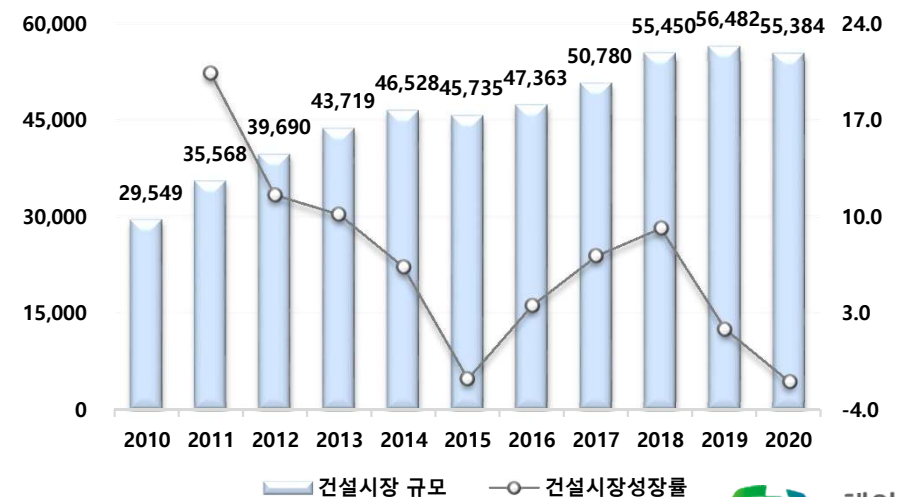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55,384	56,093	-709
성장률(%)	-1.9	1.4	-3.3
CAGR*(%)	4.0	4.3	-0.3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① 아시아



중국

-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올해 교통인프라에 1,272억불을 투자했으며 향후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5년간 6,363억불을 투자할 계획 발표함



베트남

- 베트남 정부 주도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상업시설 (쇼핑몰, 호텔)은 관광 및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축소 및 지연될 가능성 높음. 또한 가계 수입이 급감하면서 주택 대출 수요도 감소되어 주택 부문의 약화 예상
- 그럼에도 최근 상황이 호전되어 5.4일부터 베트남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착공됨(FPT Telecom 소유, 호치민 소재, 2021년 1분기 말 완공 목표).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북남고속도로, 롱탄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및 항공 사업을 통한 지역 연결성 개선에 주력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인프라 PPP 사업 및 예산지출 가속화 예정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① 아시아



- 태국정부가 1조바트(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나, 정부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차입 혹은 채권발행을 통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과도한 차입에 따른 현지화의 평가절하, 외환위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태국 GDP를 선도하는 관광(20%)과 무역(20%)이 크게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GDP 비중이 2.5%에 불과한 건설사업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 지난해 태국 PTTGC社가 추진한 바 있으나 경기전망이 좋지 못해 취소한 아로마틱플랜트 건설이 하반기 재추진될 여지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전망이 불투명함. 방콕 도시철도(오렌지라인)는 추진이 지연되었고, Hin Kong을 비롯한 각종 IPP 프로젝트도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자카르타-반둥(Bandung) 연결 철도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인력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① 아시아



말레이시아

-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와 유가폭락 등의 영향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0.7% 기록, 정부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582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동부해안철도사업(ECRL), MRT 2호선 등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를 추진할 계획임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6. 2 서킷브레이커를 해제하고, 3단계에 걸친 조치를 통해 경제 및 지역 활동을 안전 하고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인 바, 건설현장에 점진적인 인력투입 확대, 발주처의 업무재개가 예상됨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외국인 근로 인력의 현장 투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공사 현장은 금년 말경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추정됨
- 일부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잠정 연기되었음. 평가지연 사업은 Jurong region line 잔여 구간, 2021년으로 입찰연기 사업은 Cross Island line 일부 구간임.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인데, 이로 인해 사업이 조정되거나 추진이 중단될 수 있음. ex) Changi 공항 제5터미널 2년간 중단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② 중동

중동

- 세계건설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한 4,373억불 규모로 전망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주요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연기될 뿐만 아니라, 엑스포 2020 및 월드컵 2022 개최 연기 등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 진행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산유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예방 조치 등의 영향으로 둔화된 경제 활동과 더불어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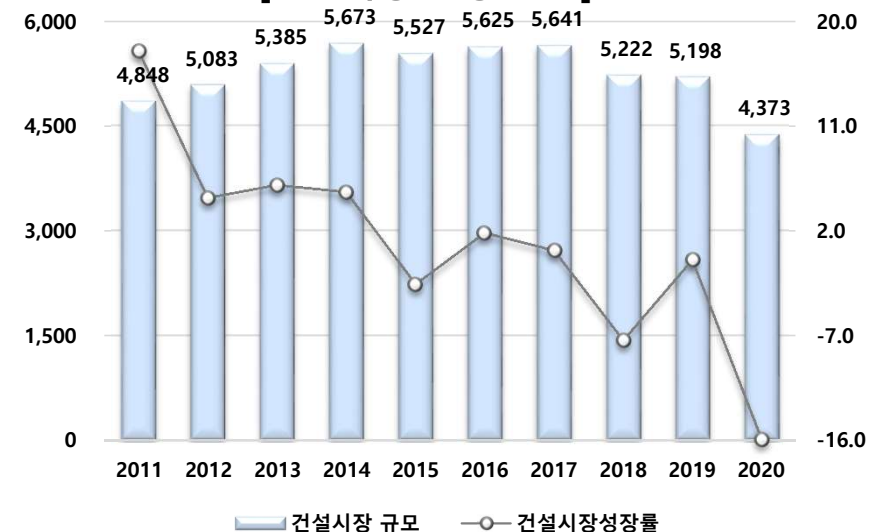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4,373	5,224	-851
성장률(%)	-15.9	-2.8	-13.1
CAGR*(%)	-6.1	-1.4	-4.7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②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는 정부 기관들에게 올해 지출을 30%까지 줄이도록 지시한 바 이로 인한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우려됨. 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에 13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토목, 건축 분야 발주가 기대됨



아랍에미리트

- 아랍에미리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예산 중 인프라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카타르

- 카타르는 주식시장 등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206억불 규모의 경제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North Field Expansion(NFE) 사업을 토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집트

- 이집트 RSNP(Red Sea National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가 발주한 4억불 규모의 정유공장 본 입찰마감일이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2020/2021년에 276억불을 녹색프로젝트(691건) 추진에 투자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③ 아프리카

아프리카

- 2020년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101억불로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
- 특히, 원유수출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DR콩고, 가봉 등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도 지난 6월 모잠비크, 가봉, DR콩고, 잠비아를 CCC 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과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 보건 분야 지출 증가로 부채 증가 압박을 받고 있어 신규 발주는 물론 기존 시공 중 공사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역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고성장 국가와 LNG 플랜트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계획된 각국의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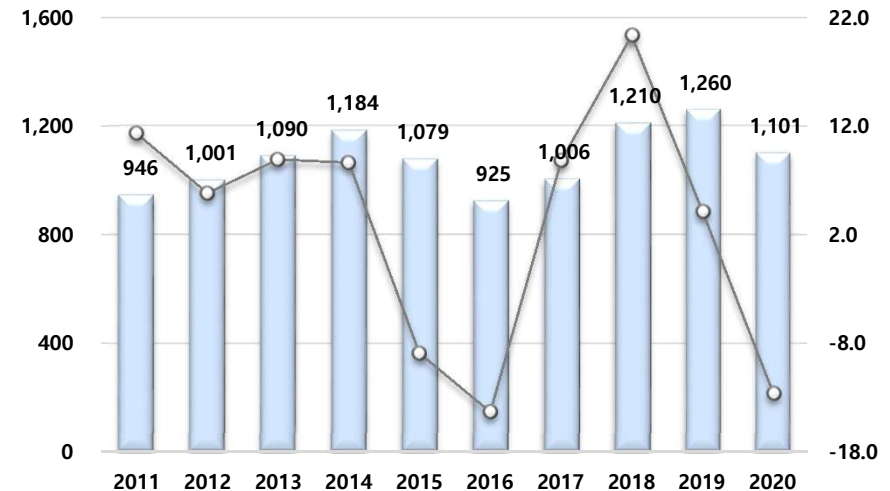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1,101	1,074	27
성장률(%)	-12.6	-1.2	-11.4
CAGR*(%)	4.5	3.9	0.6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건설시장 규모 ○ 건설시장성장률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③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정부는 예산 50억불 삭감하고, IMF에 긴급자금 70억불을 지원 신청함. 재정난으로 계획된 국책사업과 LNG 플랜트 사업 지연이 예상됨

모잠비크

- 모잠비크는 최근 피치로부터 투기(정크) 등급인 CCC를 받을 만큼 재정여건이 악화된 데다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300억불 규모의 로부마(Rovuma) LNG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이 결국 2021년까지 연기됨에 따라 금년에 본격화가 예상되는 LNG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케냐

-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Big 4 Agenda) 추진을 위해 배정 예산을 전년(약 44억불) 대비 약 70% 감소한 12억불 배정으로 조정하면서 케냐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VISION 2030에 의거하여 LAPSET(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프로젝트 사업과 15억불규모의 표준궤도철도(Standard-Gauge Railway: SGR)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③ 아프리카



남아공

- 최근 도시화 진전 등으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600억불을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남아공 경제악화 우려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조정하는 등 재정난으로 활발히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임



앙골라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14억불 규모의 루안다 신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5월말 재개하였지만 공사 기성 지급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중남미

- 중남미 건설시장은 6개 지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23.5%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규모는 4,250억불로,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할 전망
- 브라질, 페루를 비롯해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에
소나루 대통령은 여전히 30%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브라질산업은행(BNDES)이 주축이
되어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 전 세계 광물자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칠레의 구리 채굴 광산업체의 매출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였고, 광산개발관련 인프라 사업발주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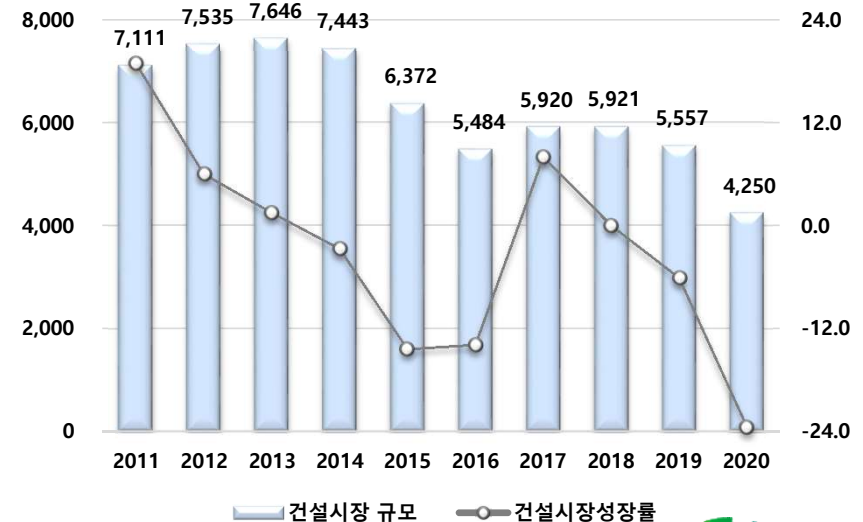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4,250	4,887	-637
성장률(%)	-23.5	-9.8	-13.7
CAGR*(%)	-6.2	-2.8	-3.4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④ 중남미



브라질

- 브라질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12만명(7.21)으로 미국에 이어 코로나 확진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고속도로 이용률이 전년 대비 43.8% 하락(지난 4월 기준)하였으며, 전체 교통량은 51.5% 감소, 공항 이용자는 동기 대비 94.6% 감소함
- 브라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 산업은행(BNDES)이 주축이 되어 인프라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멕시코

- 건설, 제조업 등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난 4월 멕시코 산업 생산량이 전월 대비 25.1% 감소(건설업 38% 감소)하는 등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임
- 멕시코 중앙은행은 '20년 경제 성장률이 -8.8% 하락할 것으로 전망. 6월부터 건설업, 자동차제조, 광산업 등 필수 분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허가 받아 활동 중.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④ 중남미



- 지난 3월 구리 가격 급락 이후 가격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음. 또한 칠레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사업부(MOP)는 올해 총 29억불을 투입하여 병원, 고속도로, 공항 등을 PPP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Enel Green Power Chile사는 총 1.8억불을 투자하여 144MW 규모의 Renaico II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ES Gener사는 5천만 불 내외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칠레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일환으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임. 녹색 금융(Credito Verde)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경기 부양 및 활성화 대책으로 주요 56개 인프라 사업에 총 27억불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1억불), 산 마르틴 항구 건설사업(4억불) 등이 포함됨
-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신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북미·태평양

- 전체 시장의 15.7%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규모는 1조 6,500억불로 -10.8%이 역성장이 예상됨
-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8천여명(7. 3)을 상회하는 등 7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 실업률 추이는 3.5%(2월) – 4.4%(3월) – 14.7%(4월) – 13.3%(5월) 로 나타남
-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대선(11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 협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지난 3월 미국 상원에서 승인한 2조불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교통 인프라 및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캐나다 정부는 570억불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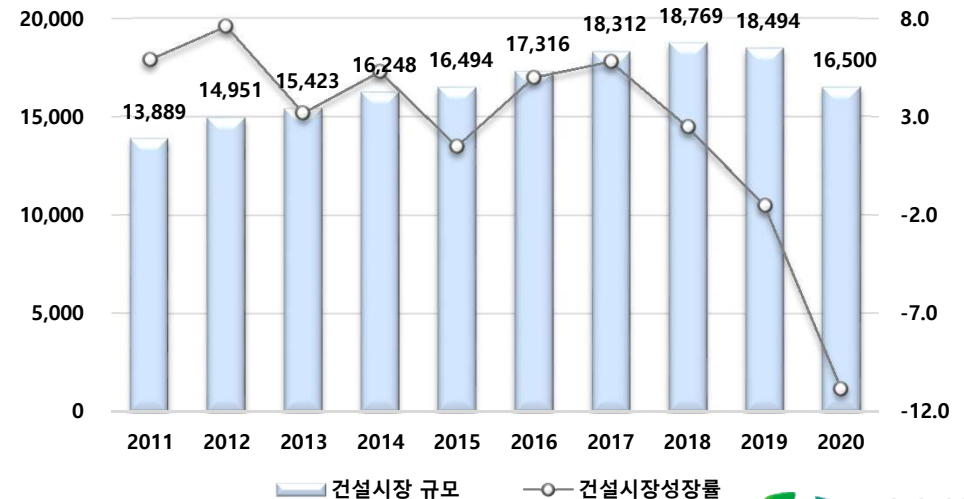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20. 6)	이전 전망('20. 4)	증감
규모(억불)	16,500	17,909	-1,409
성장률(%)	-10.8	-4.2	-6.6
CAGR*(%)	-1.2	0.6	-1.8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⑥ 유럽

유럽

- 8.8%의 역성장이 예상되며, 규모는 2조 3,751억불로 전체 시장의 22.5%를 차지
- 5월부터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는 5월 중순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경제활동도 일부 재개
- EU는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유로(약 5,626억불) 규모의 경제부양 패키지에 합의하였고, 6월 4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코로나 부양책 재원을 1조 5,000억불로 확대하기로 결정
- 프랑스 정부는 3월 중순부터 건설현장 봉쇄 조치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건설시장은 14.1%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는 4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들의 90%가 실업자라고 발표. 한편,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 4월, 54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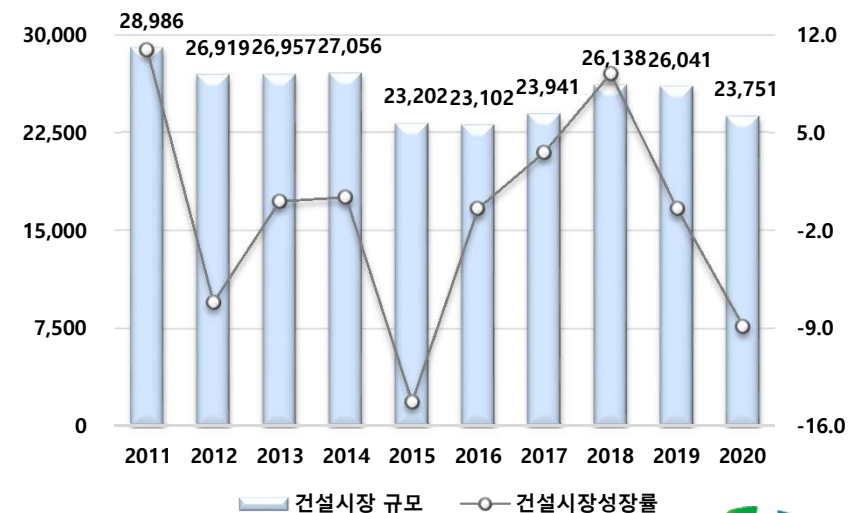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23,751	25,788	-2,037
성장률(%)	-8.8	-4.3	-4.5
CAGR*(%)	0.7	2.8	-2.1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감사합니다.

정지훈 책임연구원
02-3406-1054
jhjung@icak.or.kr